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재난안전상황실·한파 대응 합동T/F팀 운영 등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유지키로

전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기습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폭설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과 CCTV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연계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제설을 위해 제설 차량 42대를 임차 계약했으며, 제설자재 4,859톤(염화칼



전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슘, 소금 등)을 사전 확보했다.

또 제설함 설치와 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등 각종 제설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돌발 강설 및 결빙 상황에 대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나아가 시는 폭설 시 제설 장비와 자재를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도로리플 일원(완산구 전주천서로 279-39)에 제설전진기지를 조성해 대응 효율을 높이기도 했다.

시는 향후 강설 예보 시 도로 순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1~3시간 전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적설 취약 구조물 및 결빙 취약 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이면도로 및

보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통장, 자율 방재단,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전담제설반(1만770명)을 운영할 예정으로, 제설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 508점을 추가 구입하기도 했다.

동시에 시는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한파 대응 합동T/F팀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생활지원사 등 416명을 통해 독거노인과 기저질환자 약 1만511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승강장 방한텐트 및 온열의자 설치 등 한파저감 시설도 설치·운영한다.

시는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긴급 대피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제도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시는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한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계량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최우선 응급 복구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8일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초록정원관리사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거리'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전주 제1산단 일대 초록정원관리사 등 동참 실시

전주시 팔복동 전주제1일반산업단지가 초록정원관리사 등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초록정원관리사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거리'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호자 시니어클럽(20명) △전주시니어클럽(20명) △서원시니어클럽(20명) △덕진노인복지관(8명)에서 노인 일자리 역량 활용 사업에 참여한 88명이 동참했다.

특히 초록정원사들이 환경정비 활동에 동참해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산단과 가로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권희성 기자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산단 일대 거리를 돌면서 △가로정원 정비 △쓰레기 수거 △임목 폐기물 정리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관리가 미흡해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간의 환경을 정비해 근로자와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과 협력 의지를 표하며 정비 활동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 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참여자를 격려하고, 정비 참여자들을 위한 간식을 후원하는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한파 대비 경로당 현장 행정

우범기 전주시장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한파 히터로 제공될 경로당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18일 올겨울 한파면터로 운영되는 완산구 평화주공그린2차경로당과 덕진구 인후선변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시는 올해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며 쉴 수 있도록 350개 경로당(완산 133곳, 덕진 217곳)을 포함해 노인·사회복지관, 관공서, 도서관, 금융기관 등 총 467곳을 한파 히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우 시장은 이달 초 각 경로당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세트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식사 및 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우 시장은 또 관계자들과 함께 경로



당 난방기기 작동 상태와 창문 단열 처리, 소화 장비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겨울철 화재 및 한파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파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소통과 지역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

일률적 건축 높이 규제 폐지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이후 두 차례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

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 완화와 개발 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지난 2018년 종매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46만 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과 주변 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초 지정 이후 문화유산 추

가 지정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 높이 규제를 폐지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역사도심에서는 그동안 건축 높이가 도로폭 이하이거나 12m 이하 도로일 경우 3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이가 적용된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 합리화 관련 세부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쌀쌀해진 날씨 속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는 2025년~2026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른게 시작

된 만큼 고위험군 보호 및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매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집단 발생 감시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

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개인위생 수칙 및 올바른 기침 예절 준수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시 출근·등교 자제 후 휴식 등을 준수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1 연금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9%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13% 개혁안

2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40%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

43% 개혁안

3 지급보장을 명문화 합니다.

국가 지급보장

4 크레딧 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